

# 11번째 우승 도전 KIA 타이거즈...KS 역사도 다양

1983년 해태 첫 우승...선수 테러·구단버스 방화 등 우여곡절

KIA 팀명 변경 후 2009년 최초 7차전 끝내기 홈런으로 우승

KIA 타이거즈가 8년 만에 통산 11번째 우승을 목표로 프로야구 최대 축제인 2017 가을야구 마지막 무대에 선다.

한국 프로야구단 중 가장 많은 10개의 우승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타이거즈는 소동과 해프닝의 역사도 다양하게 간직하고 있다.

KIA의 한국시리즈 도전사는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가 첫 우승을 차지한 198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국시리즈는 타이거즈와 MBC정통의 대결로 결정돼 10월12일부터 펼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 시작을 3일 앞둔 그 해 10월9일 이용산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국시리즈는 연기됐으며 10월15일 첫 경기가 펼쳐졌다. 타이거즈는 4승1무의 성적으로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첫 우승 때 정규리그 전반기 1위의 주역 홈런타자 김병연이 후반기를 앞두고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김병연은 후반기 마취제에 복귀했으며, 한국시리즈에서는 홈런을 잡추기 위해 풋수염을 기른 채 나

서 19타수 9안타 8타점을 올려 MVP에 선정됐다.

1986년 2번째 우승에 도전할 때는 '구단 버스 방화'라는 초유의 사건을 겪기도 했다.

타이거즈는 삼성과 한국시리즈에서 만났다.

광주에서 열린 1차전에서 타이거즈는 삼성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화가난 홈 관중이 7회말 이닝을 마치고 더그아웃으로 들어 가던 삼성의 구원투수 진동한에게 병을 던졌다.

머리를 맞은 진동한은 김시진으로 교체됐으며 타이거즈는 역전승을 거뒀다.

2차전을 내준 타이거즈는 장승우를 대구로 옮겨 3차전에서도 역전승을 거뒀다.

분노한 관중들은 "1차전 패배의 원인이 병 투척이다"며 타이거즈의 구단 버스에 불을 질렀다.

일부 관중은 밤 늦게까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며 난동을 부렸다. 타이거즈 선수들은 1시간 넘게 경기장에 갇혀 있어야 했다.

한국시리즈는 무관중 경기가 논

의되기도 했지만 대규모 경찰을 배치한 뒤 경기를 이어갔으며, 결국 타이거즈가 4승1패의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치러진 한국시리즈에서는 빙그레와 경기를 앞두고 전례없는 마운드 높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1차전 빙그레는 경기를 앞두고 타이거즈가 광주구장의 마운드를 높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이거즈는 5차전을 앞두고 잠실경기장의 마운드가 낮아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확인 결과 서울올림픽 때 한국에 유리하도록 마운드를 깎은 것으로 밝혀져 해프닝은 마무리됐다. 타이거즈는 4승2패로 통산 4번째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

정규리그를 2위로 마치고 플레이오프에서 태평양을 상대로 3승을 거둬 1989년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타이거즈는 1차전 내전 원정경기에서 0-4 완봉패 수모를 당했다.

김용욱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에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됐다. 경기에 영향을 준 것 같



한국 프로야구단 중 가장 많은 10개의 우승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KIA 타이거즈는 소동과 해프닝의 역사도 다양하게 간직하고 있다.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을 기록한 나지완이 포효하고 있는 모습.

아 김 감독의 부친이 부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김 감독은 1차전을 치른 다음 날 오전 광주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대전으로 이동한 타이거즈는 2차전부터 내리 승리해 4승1패의 성적으로 통산 5번째이자 1986년부터 이어진 4년연속 우승 신화를 완성했다.

1996년에는 현대 유니콘스 투수 정명원에게 4차전에서 한국시리즈 최초 노히트 노런 패배를 당했지만 시리즈 전적 4승2패로 통산 8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997년 9번째 우승을 끝으로 타이거즈는 내리마진을 걸었고 2001년 KIA로 팀명을 바꾼 이후에도 정상을 차지하지 못했다.

KIA는 2009년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했으며, SK 와이번스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시리즈 전적 4승2패로 통산 10번째 우승을 완성했다.

마지막 경기에서 터진 나지완의 9회말 끝내기 홈런은 한국시리즈 최초 7차전 끝내기 홈런으로 기록됐다.



## KIA 김선빈 vs 두산 민병헌 한국시리즈 키플레이어 낙점

2017년 한국시리즈가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는 25일 오후 6시30분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2017 타이거즈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을 치른다.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KIA는 일찌감치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휴식과 훈련을 병행했다.

KIA는 2009년 통합 우승 이후 8년 만에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이렇게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두산은 플레이오프에서 NC 다이노스를 물리치고 3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올랐다.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무려 50점이나 올리는 무서운 화력을 뽐냈다.

이번 한국시리즈는 화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KIA(0.302)와 두산(0.294)은 팀타율 1.2위에 오른 팀이다. 상하위 타선 모두 장타력을 갖춘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두 팀 모두 타선의 파괴력에 비해 투수진의 위력은 떨어진다. KIA는 20승 원투 펀치 양현종, 헛터 노에시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그 최약체급 불펜진이 불안 요소다.

두산이 자랑하는 '판타스틱 4' 더스틴 니퍼트, 장원준, 마이클 보우런, 유희관은 포스트시즌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김선빈은 올해 두산을 상대로 강점을 보인 선수 중 한 명이다. 김선빈은 두산전 16경기에 출전해

0.408(62타수 25안타)의 고타율에 5타점 12득점을 기록했다. 니퍼트를 상대로 12타수 6안타 장원준을 상대로도 11타수 5안타를 기록했다.

김선빈은 올 시즌 체력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9번 타수에 포진했지만, 두산전 성적에 좋아 한국시리즈에서는 테이블세터로 뛸 가능성이 크다.

KIA 4번타자 최형우는 니퍼트와 장원준에게 강했다. 니퍼트를 상대로 8타수 4안타(1홈런) 3타점, 장원준을 상대로 10타수 4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두산 타선에서는 민병헌이 키플레이어다. 민병헌은 올해 KIA전에 좋은 성적을 올렸다. 16경기에 출전해 0.397의 타율에 2홈런 12타점을 기록했다.

KIA의 원투 펀치 양현종과 헛터를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양현종을 상대로 5할 타율(6타수 3안타)을 기록했고, 헛터를 상대로 16타수 5안타(1홈런) 3타점을 올렸다.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타격감도 좋다. 민병헌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NC 에이스 에릭 해커를 상대로 결정적인 민투 홈런을 터뜨리면서 두산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다.

플레이오프에서 6할 타율(15타수 9안타)에 5홈런 12타점으로 명타를 휘두른 오재일 역시 요주의 인물이다. 오재일은 올해 KIA전에서 3개의 홈런을 날렸다.

## 평창서 맘 비우고 달려드는 이상화 “부담없이 즐겁게”

“소치보다 부담되지 않아...한국 대회라 기대도”



24일 오전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미디어 데이'에서 대표팀 김보름(왼쪽부터), 이상화, 박승희가 새로운 경기복을 착용한 채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이상화(28·스프츠초토)는 스피드 스케이팅을 넘어 한국 선수단을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앞선 두 차례 올림픽에서 모두 금메달(500m)을 거머쥐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부담이 될 법도 했지만 이상화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24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공개 훈련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마주한 이상화는 “소치보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하는 대회라 기대도 된다”면서 “앞선 세 차례 올림픽보다 즐거울 것 같다. 설렌다”고 웃었다.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2014소치올림픽을 앞두고 이상화가 받았던 부담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니퍼트 챔피언’이라는 호칭은 어느덧 ‘반드시 2연패를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바뀌어있었다.

이상화는 “그때는 올림픽 전에 세계신기록도 세웠기에 올림픽에서의 실패가 두려웠다. 주변에서 2연패를 확정하듯 말해서 부담이 됐다”면서 “지금은 경험이 있어서 더

편찮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반격적인 올림픽 시즌을 시작한 이상화는 “운동을 하다 보니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월드컵 시리즈도 남아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츰 기량을

올려나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시즌 실시했던 훈련에 대해서는 “경기를 연습처럼 연습을 경기처럼 했다”면서 “작년에는 전체적인 페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떻게 타야 하는지 감을 익히는 데 중

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상화는 지난 시즌 종아리 부상으로 크게 고생했다. 2010밴쿠버올림픽 이후 생겨난 무릎 통증도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상화는 “다른 선수들도 다 부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재활을 열심히 했다. 부상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상화는 다음 달 초 시작되는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를 통해 평창올림픽 진출 확률을 노린다. 여전히 세계 정상권 기량을 유지 중인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평창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창에서의 목표는 완벽한 레이스다.

이상화는 “모든 선수의 목표는 금메달일 것이다. 그런데 난 이미 2개나 갖고 있다. 지금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목표는 금메달로 잡고 있지만 메달 색깔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개의치 않고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레이스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패 리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대기록을 앞둔 만큼 누구보다 절실하다. 이상화는 “예전에도 욕심을 내진 않았다. 올림픽의 경우 최대한 마음을 비워야 결과가 나온다”고 다짐했다.

## 호날두, 2년 연속 FIFA 최고 선수 선정

올해도 최고의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였다.

호날두는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팔라디움 극장에서 열린 더 베스트 국제축구연맹(FIFA) 풋볼 어워드에서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거머쥐었다.

지난해에도 리오넬 메시(FCB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은 호날두는 2년 연속 왕좌를 지켰다.

FIFA는 2015년까지 프랑스 풋볼과 함께 FIFA-발롱도르라는 이름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지만 프랑스 풋볼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이름의 시상식을 탄생시켰다.

호날두는 43.16%의 지지를 받아 19.25%의 메시를 크게 제쳤다. 두 선수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는 6.97%에 그



서포터 동료, 팀원, 코치 등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날두를 지도하고 있는 지네딘 지단은 최고 감독의 영예를 안았다. 잔투이지 부폰(유벤투스)은 최고의 골키퍼로 이름을 올렸고, 가장 멋진 골을 터뜨린 선수에게 주어지는 푸스카스상은 올리비에 지루가 가져갔다.